



조건 제 8179 호 대표 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음력 8월 21일)

광양만권 6개 산단, 이차전지 공급망 메카로 뜬다

울촌1·세풍·해룡산단 등... '국가전략 특화단지' 지정
2035년까지 기초원료·핵심소재·재활용에 10조 투자

광양만권 6개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첨체된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배터리 공급망의 전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울촌1일반산업단지와 세풍일반산업단지, 해룡일반산업단지, 황금일반산업단지,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광양만권 6개 산단을 광양만권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했다.

광양만권은 그동안 철강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견인해왔지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축적해온 산업 기반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양만권은 단순한 소재 생산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이

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특화단지 조성을 계기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풍산단 등을 중심으로 용수와 폐수, 전력,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예타 특례와 인프라 조성 등 국비 지원과 민원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돼 2035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기초원료와 핵심소재, 재활용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 기존 포스코 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에 실현하는 동시에 광양만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차전지 장비·부품 기업과 배터리 셀, 에너지저장장치(ESS), 차량용 배터리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 산업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R&D·전문인력 양성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30일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민석 당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 '국비전쟁'... 교통·AI 등 예산중액 '총력'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2027년도 국비 774억원의 추가 반영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철성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 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지역에서는 안도걸 특별시장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송형근 특별시의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도 정부 예산 13조900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전년도 국비 확보액 13조804억원보다 6.3%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서

민주당과 첫 예산정책협의회... 당정 원팀 공조기로

광역교통망·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 20개 주요사업

확보한 9000억원을 더하면 전년 대비 13.1%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를 한 단계 더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중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 20개, 774억 7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특별시는 먼저 영암~광주 고속도로, 철도 신산업선과 서해안선, 나주~광주·화순~광주 광역철도, 경전선과 호남고속철도를 잇는 나주 연결선 등 6개 세부사업을 묶은 '지역 핵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면제 등을 함께 건의했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김산업 산업 규모화와 위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른김 집적화단지 시범 조성' △자율주행 실증 확대에 대응한 '자율차 안전성관리 및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기술·신산업 분야 핵심 현안으로 국가 AI 집적단지 활성화, 고전력 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광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사업화 지원,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 시설 구축, 파일럿형 국산 NPU 실증센터 구축, 스타트업파크 구축 등도 주요 지원 사업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미래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설, 수산 유전자원 AI센터 구축, 무등산 생활문화회복센터 조성, AI-콘텐츠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AI Pet

LifeCare 산업혁신 지원센터, 총장아시아 에니컬저 스트리트 조성, 웹툰 창작커뮤니티 허브 조성, 세월호 문화공간 조성 등 10건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들 건의 사업은 광역교통망, 권역별 산업 기반, 미래산업, 문화·생활 기반시설 등을 두루 확보해 통합 효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통합특별시는 강조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하나 된 뒤 처음 맞는 국가예산에서 당과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13조9009억원과 530억원의 통합 재정인센티브를 담아낼 수 있었다"며 "통합에 따른 국비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정부예산을 확보한 만큼 이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과 중액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특별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원팀'을 이뤄 국비 추가 반영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켄텍, AI 특화 인재 250명 양성...AX대학원 선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6년간 약 190억원을 지원받아 전력망과 2차전지 등 지역 에너지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켄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모한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사업(AX대학원)'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응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티디엘과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해 참여했다.

선정에 따라 신설하는 '에너지 AX 대학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력산업인 전력망 등 에너지 시스템과 2차전지 등 에너지 소재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고

급인재를 양성한다. AX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환을 뜻한다.

켄텍은 올해부터 6년간 약 19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AI 교육·연구를 위한 교육과정과 실습·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김종권 에너지 AX 대학원장 겸 에너지AI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켄텍 교수진 16명이 참여한다.

참여 교수진은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AI 연구를 수행하고, 연간 약 40명씩 6년간 총 250명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 제3차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10면

